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4호 【루계 제25583호】 주체106(2017)년 3월 15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신화, 자력자강의 기적들을 더 많이 창조해나가자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더욱 고조시켜

자강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자강도당위원회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혁명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올해 도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도록 하기 위한 청입식정치사상사업을 드세게 벌려온 도가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도에서 세운 주요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사상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단계별목표를 명백하게 세운데 맞게 모든 단위 당조직들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초과완수하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선전선동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전개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만리마선구자대회의 목적과 중요성, 정치적의의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선전선동수단전시 및 출동식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모든 당조직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청입식으로 박력있게 진행하여 온 도가 전투적분위기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경공업, 농업, 건설부문 등 여러 부문 당조직들에서 사상의 로문을 일제히 열고 눈부신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중요전투장들에 시대정신이 반영된 구호, 표어들과 선전화, 속보판, 영예게시판, 경쟁도표들을 게시하고 선전선동사업을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 도미술창작사, 기동예술선동대, 녀맹예술선동대, 집중강연선전대를 비롯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상사업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특히 선동원들의 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사상적준비정도와 정치실무적능력을 높여주어 우리 당사상전선의 민음직한 전초병으로, 정치활동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안의 모든 선동원들은 대중에게 혁명적신심과 락관을 북돋아주는데서 선동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하고 랑만과 정서가 풍부한 선동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강계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도안의 발전소당조직들에서 발전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조와 구조물보수 등을 다그쳐 상반년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수령의 유훈관철전이며 만리마기수는 수령결사옹위의 선봉투사들이라는것을 대중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면서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장, 기업소당조직들에서도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틀어쥐고 내밀며 지료별생산계획을 철벌, 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들이대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공장과 공장, 작업반과 작업반사이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사회주의증산경쟁도표들에 기적의 만리마들이 다투어 날아오르게 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며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알곡, 남새를 비롯한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특히 작업도의 특성에 맞게 작업부문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파견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청년들이 천군만마와도 같은 폭풍기상으로 대고조격전장들을 청년관으로 틀씩하게 만들며 당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폭발시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 적극 지원

전국각지에서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 대한 지원열풍이 날을 따라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들에서는 철길건설과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성, 중앙기관들에서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건설건재공업성과 화학공업성에서는 수천t의 세멘트를 비롯한 많은 자재를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 보내주어 공사를 다그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자공업성에서는 철도변전소에 설치할 고속도차단기 수십대를, 기계공업성에서는 현수애자, 차단기, 피뢰기, 고압배전반, 전류변성기, 통신케블을 비롯한 전기설비와 자재를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작업공구들, 많은 량의 후방물자들을 안고온 내각정치국의 일군들도 돌격대원들과 일을 같이하면서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해주었다. 여러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책임일군들이 많은 량의 설비, 자재와 후방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철길건설장에 찾아왔다.

각지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예비를 동원하여 수십대의 콘전기재들을 보장하며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의 가정생활을 돌봐주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웠으며 많은 물자들을 마련하여가지고 216사단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평양시련대를 찾았다. 지난 2월에도 평양시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 시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하였다.

남포시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철길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면서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대형화물자동차와 차부속품들, 솜옷, 솜신발을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과 도인민위원회, 도검찰소, 도무역관리국 일군들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다이야, 차부속품과 함께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하여 철길건설에서 위훈을 세우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안겨주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대형화물자동차와 굴착기, 럭형파쇄기, 진동다짐기, 압축기를 비롯한 콘전기재들과 설비들을 보장해주어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차굴공사를 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이 성과를 부쩍 올리도록 적극 고무추동해주었다.

량강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함께 성의껏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철길건설장에 여러차례 찾아와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황해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철길건설에 자기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고있다.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도 일군들과 청년동맹원들이 많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건설장으로 달려와 돌격대원들에게 안겨주고 일도 함께 하면서 철길건설에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대상설비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 철길건설에 필요되는 설비와 물자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온 나라의 뜨거운 지원의 마음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철길건설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현지보도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지게

평안북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철나무심기전투에 집입하여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여 수천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보장한 기세드높이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련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산림부문의 일군들은 년차별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모든 시, 군들에서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모를 키워내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일군들은 시, 군산림경영소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도록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도안의 모든 시, 군산림경영소들에서는 나무모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창성이깔나무와 세일소나무, 잣나무 등 10여종의 많은 나무모들을 키워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도에서는 지난해에 400만개의 단지모를 생산한것을 포함하여 1억여그루의 나무모를 키워내고 그중에서 올해에 1만 3 000정보의 면적의 산들에 옮겨심을수 있는 5 800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봄철나무심기를 진행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놓게 되였다.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림부문의 일군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난 3월 2일 향산군과 신의주시에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봄철나무심기전투에로 광범한 군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산림부문의 일군들은 봄철에 심는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지도를 잘하고있다. 일군들은 데라코텔을 시, 군들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산들에 옮겨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이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나무심기방법을 널리 도입하도록 떠밀어주고있다.

도에서는 산림기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도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산림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도에서는 시, 군모제양묘장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고 콤퓨터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국가망가입을 위한 수십km의 빛섬유케블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봄철나무심기전투는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나무심기실적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종전의 기록과 실적을 끊임없이 갱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상반년 광물생산계획 완수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고경찬채광소대에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고경찬채광소대에서 지난 2월 28일에 련합기업소적으로 제일먼저 상반년도 유색금속광물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그 기세로 더욱 질풍같이 내달린 결과 3월 10일현재 소대의 상반년계획수행실적은 121.5%로 치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은 유색금속광물생산실적으로 받들어 만리마시대의 참된 주인공이 되려는 불같은 열정을 안고 올해전투에 진입한 때로부터 맡겨진 일별, 월별계획을 3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며 질풍노도처 내달려 상반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낸 이 자랑찬 성과는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화답해나선 이곳 광부들의 불타는 충정의 열도를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광부로 성장한 소대장 고경찬동무는 금골광산 당조직의 지도밑에 소대의 새 세대 광부들이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교대가 따로 없이 막장에서 앞채를 메고 소대원들에게 여러가지 정황에 따르는 작업방법과 묘리를 가르쳐주면서 소대안에 과학기술의 힘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풍이 세차게 화원되게 하였다.

소대원들모두가 당의 품속에서 성장한 금골의 광부답게 만리마기수가 되여 승리의 월계관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남먼저 뻣뻣이 들어서자고 하면서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천연암반을 뚫고나갔다.

지난 2월 10일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1.4분기계획을 완수한 소대의 광부들은 승리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가는 기세찬 불도가니속에서 만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릴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한번에 많은 량의 광석을 떨굴수 있는 새로운 발파방법을 모색하였다.

소대장 고경찬동무가 내놓은 기발한 착상에 기초하여 소대원들이 서로서로 지혜를 합친 결과 새로운 발파방법이 창안되여 단번에 수백t의 광석을 통채로 떨구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이룩한 기술혁신성과에 토대하여 련이어 대공발파를 들이대면서 지심깊은 막장에서 다광체굴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결과 지난 2월 28일 오후 련합기업소적으로 제일먼저 상반년계획을 결속하는 혁혁한 위훈이 창조되였다.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전진의 보폭을 힘있게 내짚은 고경찬채광소대원들은 지금 더욱 기세충천하여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남먼저 쟁취할 열의에 넘쳐 유색금속광물생산실적을 확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매일 계획 1.3배이상 넘쳐 수행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화차수리전투현장들에 나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2월 화차수리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낸데 이어 3월에도 매일 맡겨진 화차수리계획을 1.3배이상 넘쳐 수행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화차들을 제때에 수리하여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생산자대중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떳떳이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매일 많은 량의 쇠물을 뽑아내여 화차수리에 필요한 주강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단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직장앞에 맡겨진 단조품생산계획을 매일 1.5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부속품가공과 화차조립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걸린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1, 2가공직장에서는 화차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질적으로 가공하여 매일 련합기업소앞에 맡겨진 과제를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화차조립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리한 조건을 이악하게 뚫고나가면서 대고조전투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화차들을 제때에 수리하여 보내주고있다.

대차직장의 일군들은 로력조직과 생산지휘를 짜고들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직장앞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제관직장과 프레스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단위들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화차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고산군민발전소의 언제가 솟는다

618건설돌격대에서

강원도정신이 나래치는 혈명아래 고산땅에 군민발전소의 언제가 기운차게 솟아오르고있다.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대원들이 고산군민발전소건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신념을 안고 립체전을 벌려 건설의 모든 공정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천재 언제좌우안의 수십m구간에 대한 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다양한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시대정신이 창조된 강원땅에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울 각오를 안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는 줄기찬 공격전으로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매기있게 하고있다. 특히 려단들에서 날씨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시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다음 일시에 언제콩크리트치기를 하도록 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완강히 실천하고있다.

각 려단의 일군들과 대원들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군민발전소건설완공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분투하고있다.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대원들이 불리한 지대에서 전투를 벌리고있지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철야전군을 다그쳐 지난 2월 매일 다른 단위들보다 2-3배의 콩크리트타입실적을 올린 기세드높이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평안남도려단에서 자강력을 힘있게 발휘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대중의 지혜를 불러일으켜 전투장 여러곳에 수직권양운반설비를 설치하고 콩크리트혼합물을 실어올리면서 로력이 긴장한 조건에서도 전투성과를 높이고있다.

언제좌안공지점의 산중턱의 전투장을 타고앉은 평안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대원들이 대담한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고지에 포를 끌어올리던 정신과 완강성을 발휘하여 육중한 혼합기를 산중턱에 끌어올려 리용하면서 전인붙밥의 의지로 련속공격전을 벌리고있다.

평양시와 함경남도려단 일군들과 대원들도 당의 뜻대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세계적인 청춘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서 전기문제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강용한 기상을 떨치면서 언제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각 려단 일군들과 대원들의 대중적영웅주의에 의해 군민발전소의 언제가 당중앙결사옹위의 성벽마냥 솟아오르는 속에 그 높이가 평균 10m계선을 넘어서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현지보도반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휘황한 미래, 최후승리를 본다

력사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념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심각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으로 지구상의 도처에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나서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살길을 찾아 헤매이는 피난민수가 수천만명을 헤아리고있는 지금 나라의 존엄이 굳건히 담보되고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과연 어디에 기인된것인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께서 헤쳐오신 파란만장의 인생행로를 돌이켜보시며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는다는 참으로 고귀한 금언을 력사에 새기시였다.

혁명적신념, 이 위대한 사상정신적힘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며 부강조국의 만년토대를 든든히 다져올수 있었다.

이것은 진보적인류가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들을 수령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이룩할수 있은 자랑찬 승리이며 력사의 필연적귀결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가 지닌 사회주의신념에 대하여 떳떳이 자부한다.

사회주의를 조국으로, 삶과 운명의 요람으로 간주하고 사는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진정 그것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내 나라라는것은 단군민족, 김일성민족이 사는 조선이라는 뜻이고 내 조국이라는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사회주의!

조국은 곧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는 곧 조국이라는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여오신 숭고한 뜻이였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의 바다에서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을 산악같이 일으켜세워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뜻깊은 가르치심이 하많은 사연을 안고 오늘도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내가 이번에 내 나라, 내 조국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내 나라라는것은 조선을 의미하는것이고 내 조국이라는것은 사회주의를 의미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제국주의원쑤들은 《사회주의의 실패》를 20세기의 대유산이라고 떠벌였지만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는 사회주의가 진짜유산으로 더 깊이 뿌리내리였다.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사회주의에 관한 사상리론을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서 완성하고 사회주의위업실현의 진로를 명시한 강령적학설이였다.

《인류는 오랜 세월 침략과 전쟁, 착취와 압박이 없고 누구나 평등하고 화목하며 행복하게 사는 리상사회를 념원하여왔다.

인류가 념원하는 사회는 사회주의이며 이 리상사회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현실로 펼쳐졌다.》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인류의 리상사회》, 《인류의 지상락원》이라고 칭찬하는 위대한 나라, 행복의 웃음이 가득한 인민의 나라!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에서 굳건히 수호해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모습이다.

비가 와도 가시고 눈이 와도 가시였으며 찬바람이 불어쳐도 가고 또 가신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1211고지의 험한 전선길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길이였음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국방력강화를 위한 중대한 분진에 수표를 하시며 이제 승리의 봉창혼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에게 다 이야기해주자, 인민들은 왜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하여 다 리해하게 될것이다라고 뜨겁게 외우시던 눈물겨운 그날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사회주의본태는 평온한 시기보다 어려운 시기에 그 진가가 검증되게 된다.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사회주의의 힘찬 진군가를 더 높이 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새겨진 그이의 모습은 비범한 군사가, 천재적인 리론가이시기 전에 지애깊으신 어버이의 모습이였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라는 정식화와 더불어 새겨지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북변의 산골 삼수땅에 발전소언제가 솟아오르던 10여년전의 어느날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물에 잠기게 될 지역의 주민세대들의 철거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삼수발전소건설장에 온것도 언제를 어느 정도 쌓았는가 하는것을 직접 볼뿐아니라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침수구역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살림집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는것이라고,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풀어야 할 기본문제는 침수구역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생활보장문제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절절하신 음성으로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입니다, 인민에게 의거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사회주의를 지켜나갈수 있습니다라고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사회주의가 자기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참답게 실현해나갈 때 인민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수 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하나로 줘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고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이 땅의 높고낮은 벙들과 이름모를 들길에도 애국헌신의 자욱을 끝없이 새기시였다.

조국이 간고했던 고난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걸으신 머나먼 길을 하나로 이어놓으면 지구를 몇바퀴 돌고도 남을 거리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놓고도 우리 얼마나 뜨거움속에 눈굽을 적시였던가.

언제인가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격정의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는 천지시찰한 단위가 얼마나 될것인가 하는것을 생각해본적도 없고 현지시찰을 명예나 평가를 바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나는 오직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리익을 지키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 일념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있다고, 우리 조국이 부강하고 우리 인민이 잘살게 되면 나는 더 바랄것이 없다고.

진정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빛내여주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간주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땅에서는 공장들이 멎어서고 렬차는 제대로 달리지 못하였지만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학교에로 가고 어린이들을 위한 꼬우유차가 달려가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변함없이 차례지고 인민을 위한 문화휴식장소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조국을 압살하려고 지금 이 시각에도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사는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억척같이 뿌리내리고있다.

우리 천만군민에게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는 거대한 원천은 우리에게 위대한 령도자가 계시고 위대한 당이 있다는 자부심이다.

주체100(2011)년 12월의 피눈물의 언덕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1mm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됩니다. 나는 장군님의 령전에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다는것을 맹세하였습니다. …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진시켜오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친대도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맥맥히 살아높뛰는 마두산의 구호문헌앞에서도 그리고 칼바람이 불어치는 백두산정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심장깊이 굳히신것은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앞당겨오실 굳은 맹세가 아니였던가.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나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나는 이를 악물고 허물 제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빛나는 자욱을 새겨가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지난 2월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이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게 되었다고 그처럼 만족해하시며 이곳에서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 그것은 바로 인민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적혜택속에서 실지 느끼도록 하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인가.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막으시며 인민을 위한 행복의 설계도를 펼치시는분, 때로는 먼지가 일고 때로는 비물에 진창이 된 건설장을 찾으시고 만간도 없는 물조건들에 스스럼없이 오르시는분, 물고기대풍이 든 하륙장에도 서슴없이 서보시고 비린내나는 물고기도 쥐어보시며 남다른 희열을 느끼시는분, 살림집에 놓을 가구의 자리며 접속구의 개수까지 마음쓰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우리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뿌리신 행복의 씨앗들을 풍성한 열매로 안아오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순간의 휴식도 모르신다.

완공을 알린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마다 이제 여기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천만의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달구어주었던가.

조국땅우에 일떠서고있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과 대기념비적창조물들,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훌륭한 살림집들과 문화휴식터들을 보면서 우리모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멸사복무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절감하며 주체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세우시는 멸사복무, 여기에 사회주의가 인민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생활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된 비결이 있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고 깨뜨릴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로 주타격방향을 전환한 지난해 200일전투의 나날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북부전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전변시킨 거창한 사회주의수호전, 인민복무전이였다.

자신께서 사랑하시는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력사에 없는 중대조치를 취해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손길이 있었기에 사나운 자연재해가 휩쓸었던 북부전역에서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릴수 있었다.

그렇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은 곧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고 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고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건히, 더욱 심장깊이 간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념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면 세상천지가 어떻게 변하든 반드시 이긴다는 굳센 마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다. 우리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버릴수도 포기할수도 없는것이 사회주의이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룡남산언덕이 바라보이는 곳,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서는 려명거리.

적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완공된 려명거리에서 높이 울려퍼질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오는듯싶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빛나는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천만군민의 사회주의신념은 휘황한 미래, 혁명의 최후승리를 본다.

본사기자 백 영 미

기업소에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자력갱생의 강자들을 키우시던 나날에

깊이 새겨주신 혁명정신

주체66(1977)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경제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력문제에 대해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시 공업부문에서는 생산이 빨리 늘어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력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었다. 어디서나 전력이 긴장하였다.

일군들에게 이에 대하여 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으로 말라붙으면 전력문제도 얼마든지 풀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난날 우리 혁명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끊임없이 전진하여온데 대하여 감회깊이 이야기하시였다.

일군들은 저도모르게 숭엄한 세계에 빠져들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날려온 찬란한 혁명력사를 더듬어보는 그들의 생각은 깊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혁명을 하는 과정에는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 때가 많다고,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말고 자력갱생하여 가로놓인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력사정이 아무리 긴장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앞에 가로놓였던 난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며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라,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뜨겁게 새겨안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전력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갈 맹세가 불타올랐다.

대중의 심장을 발동시키라

주체68(1979)년 12월 어느날 남포시의 한 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일군을 만나 담화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큰 규모의 대상물을 건설하고있는 남포시에서 애로되고있는 설비와 자재문제를 자체로 해결해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남포시야 큰 공장도 많이 가지고있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기중기나 혼합기같은거야 자체로 만들수 있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해결방도가 잘 나서지 않는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들에 나가 로동자동무들과 의논해보았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일군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만t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린 강선의 로동계급을 가지고있는 남포시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것도 해결하지 못하여 우에다 손을 내민다는것은 도무지 리해되지 않는다고 서운한 어조로 되이시였다.

대중의 힘을 믿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한 심한 자책감으로 하여 일군은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만t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낸 우리 로동계급의 그 심장의 크기를 볼줄 알아야 하며 그 심장을 발동시켜 돌파구를 뚫고나갈줄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도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시여 자력갱생의 위력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누구나 절감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본사기자 림 정 호

만리마시대의 본질과 특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조국은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전체 인민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새로운 만리마시대의 힘찬 맥동을 맞추어나가자면 만리마시대의 본질과 특징을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만리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만리마시대는 본질에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대번영기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하루빨리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당중앙이 정한 돌격침로따라 백두의 칼바람폭풍을 타고 전속, 폐속으로 내달리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는 날이 갈수록 억세여지고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만리마시대는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는 영광스러운 시대로 빛나고있다.

만리마시대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켰던 천리마시대의 빛나는 계승이고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전세대가 이룩한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데 혁명의 앙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솟구쳐오르게 한 천리마시대를 잊지 못하고있다. 6만t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낳고 14분동안에 살림집을 한세대씩 조립하는 놀라운 건설속도를 창조하였으며 불과 30여일만에 첫 뜨락또르를, 40일만에는 첫 화물자동차를 생산하였다. 3~4년이 걸려야 하는 방대한 해주-하성간철도부설공사를 75일동안에 보란듯이 해제끼고 한해동안에 기계공업의 정수라고 일러온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월을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려온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기상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불사신같은 정신력과 일편단심의 애국충정을 믿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였다. 전체 인민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세, 그 본때로 투쟁해나갈 때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다 해도 우리 조국은 만리마의 기상으로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로 힘차게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다.

만리마시대는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최후발악적인 도전과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전진하고 승리하는 시대이다.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자강력은 우리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필승의 보검이며 만복의 열쇠이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자강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 여기에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봉쇄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우리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만리마속도창조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려명거리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경공업부문에서 가방룩포, 이불룩포가 쏟아지고있으며 삼지연군건설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역들마다에서 기적적승리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이 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자력자강의 정신력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더욱 강대해지고있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만리마대진군을 가로막으려고 제아무리 피를 물고 날뛰어도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이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만리마시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질적인 변혁과 비약을 이룩하여 세계를 앞서나가는 시대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이것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출 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만리마속도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고 경제토대와 구조, 경영전략과 관리운영방식뿐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질적인 비약을 일으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단 몇번의 도약으로 우주궤도에 단숨에 진입하는 우주로케트처럼 다발적, 련발적인 혁신과 기적으로, 다계단의 번으로 세기를 주름잡고 세계를 따라앞서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천하제일강국의 높이에 우뚝 올려세우자는것이 만리마시대의 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만리마시대의 본질과 특징을 잘 알고 전민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누구나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자랑과 영예를 안고 승리의 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할것이다.

윤 철 회

최 룡 해 동 지

려명거리건설장 현지료해

【평양 3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 맡은 려명거리대상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만장약된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맡겨진 공사를 기한전에 무조건 끝냄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불같은 열의를 안고 날마다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최룡해동지는 강원도정신의 불길드높이 새로운 위훈을 세워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의 투쟁성과를 고무해주면서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대상공사를 태양절전으로 완공하며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지휘관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게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벌림으로써 모든 돌격대원들이 진격의 돌파구를 남먼저 열어나가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주별, 월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청년광구에 나간 이곳 초급당위원장은 협참을 리용하여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걸으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사실자료와 결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울리였다.

로농통신원 심 운 섭

강원도정신창조자들처럼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 앞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총폭발시키자

근로단체들에서 궐기모임 진행

【평양 3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궐기모임이 14일 근로단체들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판게무룬, 농근맹, 녀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궐기모임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랑독한데 이어 강남군농근맹위원장 김병수, 농업연구원 초급농근맹부위원장 박은숙 등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할데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불타는 호소는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농근맹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과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이 총발동되여 대고조진군으로 전 동맹이 부글부글 끓게 하며 동맹원들모두가 혁신자, 만리마속도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동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농근맹조직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조직으로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근맹일군들이 들끓는 협동벌에 달려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을 지켜선 전투원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총폭발시킬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넘쳐 수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심장으로 대답하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사회주의증산경쟁도표들에 기적의 만리마들이 앞을 다투어 날아오르게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총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의 나날에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대비약, 대혁신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당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 승리의 보고를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궐기모임

녀성회관에서 진행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장춘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랑독한데 이어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손명애, 락랑구역녀맹위원장 김옥화, 중구역대동문동 녀맹원 남정숙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피끓는 호소에 접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이 땅우에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여기에 수령의 유훈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관철하는 곧바른 길이 있으며 만리마시대의 참된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녀맹일군들이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녀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대오의 기수, 힘있는 기관차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고귀한 피와 땀을 바친 혁명의 전세대앞에 만리마시대의 영예로운 참전자로 떳떳이 나설수 있게 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에 적극 떨쳐나 오늘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려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리며 당의 불멸의 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원도정신의 위력으로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분수령으로 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새해전투시작부터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지난 3월 13일현재 계획보다 근 2만t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새해 행군길에 또다시 떨쳐나서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의 일군들은 종전의 기록과 실적을 경신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어깨를 겯고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막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설비, 자재,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특히 송남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애국적헌신성을 불러일으켜 탄광들에 절실히 필요한 탄차, 권양기, 탄차바퀴를 비롯한 설비, 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게 하고있다.

일군들은 소공구전시회를 의의있게 조직하고 탄광지원사업도 통이 크게 벌려 석탄증산투쟁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인포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온 탄전이 떠나갈듯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혁신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는 1갱, 2갱, 3갱, 5갱, 6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에 비력이 쉬일세라 원심을 쓰며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석탄생산에서 큰 폭을 말고있는 남덕탄광이 석탄증산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일군들은 탄부들속에 깊이 들어가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자고 호소하면서 그들과 함께 석탄도 캐고 탄차도 밀면서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탄부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엄격히 진행하여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회안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여러가지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석탄생산량을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성과에 조금도 만족을 모르고 매일 계획보다 많은 석탄을 캐내면서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근 2만t의 석탄 증산

실리있는 《애국풀》 종자보관방법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민군 강신득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강신득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어디서나 받아들일수 있는 《애국풀》종자보관방법을 찾아 리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군인건설자들은 처음에 콩크리트구조물로 형성한 반지하식과 땅을 2m이상 파서 만든 음식보관고를 리용하였다. 이 보관고들에는 출입구들을 내여 군인건설자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종자들을 관찰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종자보관과정에 습기가 필요이상 생기는 경우가 나타났다.

종자보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알맞는 온도와 습도보장이다.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던 때 지휘관들이 가슴뜨겁게 되새겨본 사연이 있었다. 축산업발전의 첫째고리로 종자문제를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116호농장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겨울철 《애국풀》종자보관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데 대한 사연이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한 먹이자물의 종자보관문제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를 떨어드리는데서도 응당 앞장에 서야 할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절절한 생각으로 가슴끓이며 채광남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새 보관방법을 연구하여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전호식구뎅이를 파서 만든 보관고를 리용하는것이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새로 착상한 이 보관고의 적지를 비탈진 땅의 중턱에 정하였다. 겨울에 찬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도 물기가 아래로 빠져 비교적 건조한 곳에서 《애국풀》종자를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여기에 너비와 깊이가 각각 1.5m 되는 구뎅이를 판 다음 바닥에 약간의 소석회를 쳐서 소독을 하였다. 그리고 종자로 쓸 《애국풀》뿌리를 넣었다. 그 뿌리들은 지난해 가을 《애국풀》을 수확한 후 흙이 묻은채로 뽑아 낸 건물안에서 일정한 기간 건조시킨것들이였다. 이렇게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 11월 중순에 뿌리들을 보관고에 옮기였던것이다.

이들은 먼저 뿌리들을 바닥에 한벌 깔고 그우에 다른 뿌리들을 놓는 방법으로 여러돌기 쌓았다.

그우에 북데기나 검불을 씌운 다음 일정한 공간을 두고 서까래를 가로놓았다. 여기에 마른 강냉이짚을 두툼하게 덮고 박막을 씌웠다. 마지막으로 두개의 통기구멍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흙을 덮어 보관고를 완전밀폐하였다.

그때로부터 세달이 지나 보관고를 터치던 군인건설자들은 저도모르게 탄성을 올리였다. 종자가 한개도 상한것이 없기때문이였다.

지금 군인건설자들은 그 종자를 온실에 옮겨심고 적기에 포전에 낼수 있도록 잘 키우기 위해 비배관리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현지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주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림업부문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보다 높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서는 겨울철생산준비를 심속있게 하고 공정별특성에 맞게 생산조직을 잘 짜고드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해마다 겨울철 동발나무와 통나무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는 위원갱목생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앞당겨진 겨울철생산준비시기

변원철동무가 사업소지배인 사업을 시작한 첫해의 겨울철동발나무생산전투때의 일이다. 일별, 주별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던 그는 종업원들의 열의에 비해 실적이 응당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느 한 작업소채벌장에 올라 종업원들과 함께 사이나르기도 하고 마감나르기에 동원된 운재차에 올라 동승도 하면서 그는 원인을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 겨울철생산에 들어가기 전달인 10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생산준비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놓치거나 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데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겨울철생산준비를 잘하면 년간 동발나무생산계획의 50%를 수행하는것이나 같다고 늘 이야기하는 종업원들의 앙양된 정신상태를 놓고볼 때 사업소적인 작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배인은 보았다.

10월에 진행하는 사업소적인 생산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사색을 거듭하던 지배인은 이 사업을 돌격대를 조직하여 봄부터 시작할 결심을 굳히였다.

생산이 한창인 때에서 얼핏 보면 로력이 긴장하였지만 마감나르기가 기본인지라 조직하고 사업만 잘 짜고들면 겨울철동발나무생산준비도 동시에 밀고나갈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당조직에서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리창식, 김철준, 리명선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와 작업소들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겨울철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세운 계획에 따라 봄부터 주별, 월별로 겨울철생산준비를 면밀히 해나갔다.

이렇게 몇달동안 겨울철생산준비를 품들여 진행하도록 한 이곳 일군들은 10월에는 그 정형을 료해하고 나타난 결함이나 부족점을 사업소적인 력량을 집중하여 퇴치해나갔다. 그렇게 하니 겨울철 산지동발나무생산실적이 뛰여오른것은 물론 운재길이 좋아져 봄과 여름, 가을철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마감나르기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쳐간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탄광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일본새로

위원갱목생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통쏘이길은 왜 달라졌는가

이곳 사업소의 통쏘이길은 다른 단위와 뚜다른 점이 있다.

통쏘이길을 자세히 보면 산비탈면을 따라 내려오던것이 나무터를 가까이하면서 굽어들어 옆으로 길게 뻗어있다. 별로 크게 눈에 띄우지는 않지만 바로 여기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질좋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해 바친 이곳 일군들의 남모르는 사색과 노력이 깃들어있다.

이곳 사업소의 지배인은 김철준, 리창식, 김철준, 리명선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와 작업소들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겨울철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세운 계획에 따라 봄부터 주별, 월별로 겨울철생산준비를 면밀히 해나갔다.

이렇게 몇달동안 겨울철생산준비를 품들여 진행하도록 한 이곳 일군들은 10월에는 그 정형을 료해하고 나타난 결함이나 부족점을 사업소적인 력량을 집중하여 퇴치해나갔다. 그렇게 하니 겨울철 산지동발나무생산실적이 뛰여오른것은 물론 운재길이 좋아져 봄과 여름, 가을철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마감나르기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어느 한 목재가공공장을 찾았던 지배인 변원철동무는 우연히 통나무제재과정에 새목이 쪼개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였다. 그곳 일군이 강한 타격을 받은 일정한 품종의 통나무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통나무의 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공정이 우리 사업소에도 있지 않을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지배인의 뇌리에는 문득 채벌지들에서의 통쏘이작업광경이 떠올랐다.

통쏘이길이 나무터까지 거의 직선이다나니 비탈이 심한 지대에서는 통나무들이 받는 충격을 피할수 없었던것이다. 결정적으로 통쏘이길로 내려오는 통나무의 속도를 나무터가까이에서 서서히 떨구어야 하였다.

사업소에 돌아온 즉시 지배인은 김철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색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때로는 비탈이 심한 산판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콤퓨터로 각이한 산비탈면에 따르는 눈판에서의 통나무속도계산도 진행하여 끝내 합리적인 통쏘이길을 찾고야말았다.

사업소적으로 새로운 통쏘이길을 닦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절과 종전에는 통쏘이길로 내려와 마구 쌓이던 통나무가 나무터 가까운 곳에서 속도가 늦춰지고 사이나르기공들에 의해 나무터들에 보기 좋게 쌓이게 되였다. 통나무의 질이 떨어질수 있는 요소가 없어진것은 물론 상차시간도 단축되여 종당에는 사업소의 마감나르기실적도 뛰여오르게 되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끊임없이 착상하며 해마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는 이곳 사업소 일군들의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일본새는 참으로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정경철

남산병원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3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산병원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최동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병원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남산병원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6(1947)년 3월 15일 남산병원을 세워주시고 10여차례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였으며 1980년대에는 분수지구에 병원건물을 새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고 치료예방사업과 병원관리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1차례나 남산병원을 찾으시였으며 환자치료사업과 관련한 900여차의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의약품과 의료설비, 겨울철난방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남산병원의 70년 연혁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과 주체적보건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자랑스러운 공적이 새겨져있다고 하면서 축하문은 병원의 의료집단이 정성은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환자치료와 간호에 지성을 다하였으며 병원관리운영을 정보화하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난해에 진개된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입원호실들과 식당을 개건보수하고 치료병동들의 외부를 일신시켰으며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낸데 대하여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남산병원의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편단심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지극한 정성과 유능한 의술을 다 바쳐 우리 당의 혁명적동지애와 인민사랑의 뜻을 헌신적으로 받들어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원장 김정철의 기념보고에 이어 부원장 송선희, 과장들인 김일남, 최영진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때문에 우리 나라는 물론 이 분야에서 발전되였다고 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화장품분류체계를 확립하는것은 그 나라 화장품공업발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화장품공업이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수십개의 학문들이 밀접한 련관을 이루는 응용과학분야인것으로 하여 여기에 드는 시간과 로력이 방대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화장품공업발전을 추동해나갈 불타는 열의로 충만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소장 강민심동무를 비롯한 화장품연구소의 연구사들과 공장기술일군들은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자료들을 부단히 탐구하며 긴장한 전투의 날과 날을 보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달려온 수십명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그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공장의 책임일군들부터 가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이 자신들의 두어깨우에 실려있다는 자각밑에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이 사업에 두팔걷고 앞장섰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하여 자체의 기술력량을 한계단 강화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공장기술자들과 과학자들과의 집체적토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마다에 새겨안은 전체 연구조성원들은 불꽃튀는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며 드디여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화장품분류체계를 내놓고 어머니당에 충정의 보고를 드리였다.

화장품을 그 효능에 따라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치료용화장품으로 구분한 화장품분류체계는 사용부위와 사용목적, 기능성정도, 치료효과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여있다. 또한 제품형태에 따라서도 유화물형, 액형, 겔형, 기름형 등 10여가지로 또다시 분류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녀성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면서도 분명하게 할뿐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이미 진행하고있던 화장품시험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신심드높이 달라붙었다.

사람의 피부를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하여, 그 효과가 1년 또는 그이상 지나야 나타나는것으로 하여 피부안전성, 사용효과성, 제품의 안정성담보는 화장품의 질보장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분석 및 측정설비를 비롯하여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들의 모습을 더 밝고 환하게, 바로 이것이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 전체 개발조성원들이 간직한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이였다.

끝끝내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분석 및 측정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화장품들과의 대비분석속에 수십가지의 시험방법을 확립하고 제품의 질과 안정성을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서 또다시 큰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이 땅에서 창조되는 모든것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여야 한다는 당의 사상이 심장마다 박 들어찬 이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과학기술주도형의 경영전략수립, 원료, 자재의 규격을 정확히 규정하며 국내원료에 기초하여 국산화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

이 모든것을 그들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 만정짜리 공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리면서 하나하나 실속있게 진척시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를 뼈에 새기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무조건성만을 체질화한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들이 다른 나라의것이 아닌 《은하수》상표를 단 우리의 화장품을 먼저 찾으며 행복의 웃음을 터칠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심학철

화장품공업발전을 추동해나갈 불같은 열의

평양화장품공장에서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두해전 2월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화장품의 본보기, 표준으로 될수 있는 새 제품들을 내놓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공장에서는 색소를 비롯한 첨가제들의 국산화가 실현되였으며 20여종의 시제품들에 대한 중간시험과 림상검토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특히 해당부문 과학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우리 식의 화장품분류체계와 시험방법을 확립함으로써 나라의 화장품공업발전을 위한 튼튼한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최상의 분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일군들은 세계적인 화장품발전추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문화수준에 맞게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을 생산하는것을 기업발전의 총적방향과 목표로 내세우고 모든 사업을 여기에 지향시켰다.

공장의 기술력량과 련관단위의 과학자들이 집체적지혜를 모아 완성한 우리 식의 화장품분류체계와 시험방법은 이들의 완강한 실천력을 보여준 첫걸음이였다.

화장품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와 취미가 시로 다르고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것만큼 수요자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화장품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고 같은 종류의 화장품도 사람들의 피부색과 기호에 따라 여러가지로 개발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때문에 우리 나라는 물론 이 분야에서 발전되였다고 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화장품분류체계를 확립하는것은 그 나라 화장품공업발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화장품공업이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수십개의 학문들이 밀접한 련관을 이루는 응용과학분야인것으로 하여 여기에 드는 시간과 로력이 방대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화장품공업발전을 추동해나갈 불타는 열의로 충만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소장 강민심동무를 비롯한 화장품연구소의 연구사들과 공장기술일군들은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자료들을 부단히 탐구하며 긴장한 전투의 날과 날을 보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달려온 수십명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그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공장의 책임일군들부터 가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이 자신들의 두어깨우에 실려있다는 자각밑에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이 사업에 두팔걷고 앞장섰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하여 자체의 기술력량을 한계단 강화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공장기술자들과 과학자들과의 집체적토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마다에 새겨안은 전체 연구조성원들은 불꽃튀는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며 드디여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화장품분류체계를 내놓고 어머니당에 충정의 보고를 드리였다.

화장품을 그 효능에 따라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치료용화장품으로 구분한 화장품분류체계는 사용부위와 사용목적, 기능성정도, 치료효과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여있다. 또한 제품형태에 따라서도 유화물형, 액형, 겔형, 기름형 등 10여가지로 또다시 분류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녀성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면서도 분명하게 할뿐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이미 진행하고있던 화장품시험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신심드높이 달라붙었다.

사람의 피부를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하여, 그 효과가 1년 또는 그이상 지나야 나타나는것으로 하여 피부안전성, 사용효과성, 제품의 안정성담보는 화장품의 질보장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분석 및 측정설비를 비롯하여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들의 모습을 더 밝고 환하게, 바로 이것이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 전체 개발조성원들이 간직한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이였다.

끝끝내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분석 및 측정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화장품들과의 대비분석속에 수십가지의 시험방법을 확립하고 제품의 질과 안정성을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서 또다시 큰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이 땅에서 창조되는 모든것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여야 한다는 당의 사상이 심장마다 박 들어찬 이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과학기술주도형의 경영전략수립, 원료, 자재의 규격을 정확히 규정하며 국내원료에 기초하여 국산화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

이 모든것을 그들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 만정짜리 공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리면서 하나하나 실속있게 진척시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를 뼈에 새기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무조건성만을 체질화한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들이 다른 나라의것이 아닌 《은하수》상표를 단 우리의 화장품을 먼저 찾으며 행복의 웃음을 터칠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심학철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거리와 마을, 일터를 아름답게 꾸리자

대동강기슭의 봄맞이풍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거리와 마을, 일터를 깨끗하게 꾸려야 온 나라에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사람들이 언제나 명랑하고 문명하게 생활하고 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3월과 4월은 위생월간이다.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없애버리고 온갖 꽃 만발하는 봄정취에 맞게 가정과 마을, 일터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리는것은 우리 인민의 생활습성이다.

얼마전 평양시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우리에게 이번 3, 4월 위생월간에 대동강구역 청류지구를 시적인 본보기로 꾸린다는 소식을 전해주며 봉수물놀이장이며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해서 한해가 다르게 우뚝우뚝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에 어울리게 거리와 마을을 번듯하게 변모시키려는 대동강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보니 과연 대동강구역 일군들과 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했다.

봄철위생월간이 시작된지 얼흘정도 지났는데 벌써 수십개 호동의 건물벽체붙기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고 도로보수현장에서는 해당한 부분의 로반을 전부 까내고 보수작업에 들어가고있었다. 그 어느 주택구획에 가보아도 거리를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었다.

우리는 먼저 청류지구꾸리기지휘부가 자리잡고있는 청류2동사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우리와 만난 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철동무는 구역의 책임일군들이 거리와 마을들의 구석구석을 직접 밟아보며 세운 봄철위생월간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4 000여m의 도로정리로부터 수십동에 달하는 건물외장재칠하기, 우수망정리, 꽃밭조성, 공원보수 등 참으로 해야 할 일거리가 많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작전밑에 진행되는것이어서 벌써부터 거리와 마을이 달라지고있었다.

우리는 김희철동무와 함께 꾸리기가 한창인 청류지구를 돌아보았다.

작업장에 솔리는 녀맹원들의 힘찬 경제선동과 서로 돕고 이끌며 향토를 꾸려가는 근로자들과 주민들의 모습…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뜨거운 향토애로 하여 머지않아 희한해질 거리의 면모가 눈앞에 안겨오는듯싶었다.

우리는 생활문화화림에서 앞장서고있다는 청류2동의 일군들을 만나보았다.

지난 시기에도 청류2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모범이였다고 한다. 그래서 구역적으로 제일먼저 모든 인민반이 3중총성의 7월11일붉은기인민반의 영예를 지니였고 모든 세대가 선군생활문화모범가정이 되였다고 동일군인 리영희동무는 자랑스레 말하였다.

이곳 동에서는 아침이면 마을과 거리를 깨끗이 거두는것이 세대주들의 첫 일과로 되어있다. 지난 일요일에도 동에서는 아빠트들에 외장재를 새로 칠할수 있게 벽체붙기를 진행하였는데 모든 가정들에서 발벗고 떨쳐나섰다. 한시간정도 꾸리기사업에 동원되는것은 세대주들에게 있어서 상쾌한 아침운동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44인민반에 살고있는 한 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년로보장을 받고 손자, 손녀들의 뒤바라지를 하는 일도 내겐 성차지 않다네. 그래서 짬짬이 유휴자재도 수집하군 하는데 아마 내 일흔이 넘도록 이렇게 건강한것은 이 아침일과를 즐기였기때문인것 같소. 위생문화사업을 하니 우리 사는 집과 마을이 깨끗해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또 이웃들과 정을 나누니 좋고 게다가 이렇게 봄이 와서 마을이 이제부터 봄향기, 꽃향기속에 묻혀있을테니 얼마나 좋소.》

그의 말에 우리 마음도 흐뭇해졌다.

역시 구역적으로 손꼽히는 동에서 사는 주민들의 생활기풍이 달랐다.

마을을 더 잘 꾸리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세대주들이 있는가 하면 성의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나와 고무해주는 녀인들과 로인들도 있었다.

머칠전 깊은 밤이였다.

곳곳에 심을 꽃관목과 나무들을 정성껏 관리하느라 늦게까지 동에 꾸려진 양묘장에서 일하던 한성애동무와 동녀맹위원장 허은정동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동사무소앞을 지나는데 문득 몇걸음앞에서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오는것이였다.

《세멘트와 모래도 넉넉하고 벽체붙기에 필요한 바줄도 준비되였으니 래일 대동강건재공장에 가서 외장재만 싣어오면 아빠트들의 외장재바르기는 문제없겠소. 이젠 도로보수에 필요한 연석과 블로크만 제때에 보장되면 되겠는데…》

《제가 래일 연석과 장식블로크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느라 수고하는 구역도로시설관리소에 나가보겠습니다.》

구역당위원장 전금철동무와 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표동규동무였다. 래일 현장에 나와 꾸리기사업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더 해결할 것인가를 의논하며 깊은 밤에도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걷는 미더운 일군들, 이런 일군들이 힘껏 떠밀어주는데야 어찌 꾸리기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지 않으랴.

지금 구역건물관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종업원들 1 000여명으로 조직된 돌격대는 거리와 마을을 환하게 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뜻깊게 맞이하자고 낮에 밤을 이어 청류지구의 꾸리기를 전투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청류1동, 청류2동, 청류3동의 녀맹원들도 자력자강의 정신이 나래치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이런 열의속에 청류지구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변모되여가고있다.

대동강기슭의 봄맞이풍경.

향긋한 달래채며 구수한 냉이토장국냄새가 흐르는 봄정서도 좋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대동강반의 풍경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와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봄맞이를 더 좋아한다.

그것으로 하여 우리 수도 평양이 더더욱 환해지고 우리 조국의 모습이 더더욱 아름다와지기에.

본사기자 오은별

향토애, 조국애

◇ 꽃피는 봄이 왔다.

봄계절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가정과 마을, 일터들이 새 모습으로 일신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동, 인민반꾸리기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서성구역 하신동사무소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수십년전 우리 동을 몸소 찾아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간절한 그 마음을 안고 올해 3, 4월위생월간에는 동, 인민반꾸리기사업을 더 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뜻깊게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이라고만 하겠는가.

꽃피는 봄이 오면 한평생 우리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거리들에 꽃나무를 옮겨심고 가정과 일터를 더욱 환하게 꾸리는 우리 인민들이다.

바로 그래서 이 땅에 피는 꽃들도 그토록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것 아니랴.

◇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은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위한 애국사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향토애와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학교, 자기 군과 도를 알뜰하고 깨끗하게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언제인가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공장, 기업소나 다 잘 꾸렸다고, 어떤 공장은 휴양소나 궁전같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강도의 로동계급이 자기가 살며 일하는 거리와 마을, 공장을 알뜰히 거두고 잘 관리하는것은 혁명성이 강하고 공장애, 향토애가 높기때문이라고, 자강도사람들은 자기의 공장과 일터, 자기의 거리와 마을, 산촌을 제손으로 훌륭히 꾸려나가려는 마음이 강하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애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자기가 살며 일하는 거리와 마을, 공장과 일터를 알뜰히 거두고 관리하는것이 곧 애국이다. 더우기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속에서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해나가고있는 오늘날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림은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 뜻뜻한 애국의 자욱을 새기여가자, 이것이 시대의 부름이고 혁명의 요구이다.

◇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의 주인은 우리들자신이다.

자강력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쥔 우리 인민은 마땅히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 생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제손으로 해나가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 4월 위생월간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기가 사는 가정과 마을, 자기의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서로 돕고 이끌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마을과 거리, 일터를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새 모습에 맞게 일신시키는데 깨끗한 량심과 열정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만이 로동당시대 문명의 창조자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다.

보다 문명한 래일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모두 불타는 애국심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려나가자.

탄광마을에 꽃피는 자랑

순천시 새마을동 22인민반에서

얼마전 2.8직동청년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한 인민반앞에서 쉬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아담한 단층문화주택들을 병풍처럼 둘러싸고있는 울타리며 그우에 일매지게 씌워진 청기와들, 넓고 시원하게 정리된 물도랑과 마을앞으로 뻗어간 철길뚝을 보호하며 규모있게 쌓아진 옹벽들…

그곳이 바로 꾸리기사업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순천시 새마을동 22인민반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나서 자란 고향마을과 산천, 자기의 일터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꽃피우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나지막한 야산기슭에 자리잡은 탄광마을의 일경을 흐뭇한 마음안고 바라보는 우리의 귀전에 동사무소일군의 자랑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난해 동에서는 마을꾸리기에서 모범을 보인 22인민반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곳 인민반장동무에게는 올해 1월에 진행된 시적인 경험토론회에 참가한 자랑도 있답니다.》

경험토론회에 참가한 그날 홍경희녀성의 눈앞에는 지나온 나날들이 주마등마냥 떠올랐다.

…3년전 3월 어느날 인민반장사업을 맡게 된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차있었다.

(내가 과연 인민반장사업을 제대로 해낼수 있을가?)

이런 물음이 고래치는 마음을 안고 그는 마음의 전경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당장 손이 가야 할 집집의 통마루들이며 울타리들, 장마철이면 어기저기 패이군 하는 마을앞도로와 철길주변의 진창길들…

그날 밤깊도록 모대기는 그를 보고 탄광에서 오래동안 일하여온 그의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탄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아로새겨진 뜻깊은 곳이다. 이 영광의 땅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서도 마을을 훌륭히 꾸려야 한다. 나도 힘자라는것 돕겠으니 마음먹고 꾸려보자. …

남편의 이야기는 홍경희녀성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

(이 영광의 땅을 훌륭히 꾸리는데 나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리라.)

이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밤이 닳도록 쉬고 또 쉬는 홍경희녀성의 모습은 인민반원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고 마침내 모두가 마을꾸리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불같은 지향을 안은 그들은 얼마후 긴 구간의 물도랑석축을 단 이틀만에 손색없이 끝내였으며 물도랑우의 나무다리를 콩크리트다리로 다시 든든히 놓아 마을의 면모를 크게 변모시키였다.

그후 마을을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쳐 100여m의 강하천옹벽공사를 짧은 기간에 접속하고 집집의 통마루와 처마널도 보기 좋게 일신하였으며 속보판도 특색있게 꾸려놓고 담장들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인민반을 더욱 훌륭히 꾸릴 높은 목표를 내세운 이들은 수십m의 물길을 파고 자연수를 끌어들이는 공사뿐아니라 도로와 마을앞마당포장공사도 힘있게 내밀었으며 철길옆에 다락을 형성하고 갖가지 꽃들로 주변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

이 나날 인민반원들속에서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꽃펴났다.

아이들의 놀이장을 꾸리는데 가정에서 쓰려고 장만해두었던 건설자재를 스스럼없이 내놓은 주민도 있었고 담장에 그림조각을 새기느라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간 주민도 있었으며 마을꾸리기를 위해 새벽길, 밤길을 때없이 걸은 세대주들도 있었다.

오늘도 헌신의 구슬땀,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에 의해 탄광마을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일신되여가고있다. 탄광마을의 자랑과 함께 나라의 석탄산도 나날이 더욱 높아가고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날마다 변모되는 탄광마을의 새 모습!

그것은 사회주의문명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속도였고 이 나라 인민들의 불같은 애국심을 비추어주는 하나의 거울이였다.

본사기자 장정철

영광의 대지에 젊음을 더해주리

박천군 단산협동농장 청년작업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꾸리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봄을 맞아 약동하는 사회주의문화농촌, 봄철영농작업으로 들끓는 농장벌의 흥겨운 노래소리도 좋지만 날마다 그 모습을 일신하고있는 농촌마을의 풍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전 우리는 박천군 단산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을 찾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저녁무렵이였다.

하루일을 마친 작업반원들이 영농도구들을 깨끗이 씻어 창고에 들여다놓고는 또 다른 작업공구들을 들고나오는것이였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작업반장 김명빈동무가 함숙이며 창고들의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자고 저런다면서 제가 사는 보금자리야 제손으로 꾸려야지요하며 조용히 웃는것이였다.

그 모습들이 미더웠다. 하루종일 농장벌에 나가 일하고 돌어와서 또다시 일손을 잡는 청년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김명빈동무는 이제해에 지난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철야전군으로 끓어번지던 지난해 6월 어느날, 벼모들이 하루가 다르게 키돋움하는 논벌을 돌아보는 김명빈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리어있는 단산리를 빛내여나가는 길에서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는것만으로 제 세대 농업전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겠는가.

그는 작업반초급일군들의 모임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은 생산문화와 생활문화화림에서도 앞장서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두차례나 다녀가신 뜻깊은 고장에서 일하는 우리도 마땅히 일터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당조직에서 그들을 적극 지지해주었고 리와 군의 일군들이 나서서 필요한 조건보장대책들을 일일이 세워주었다.

영농작업을 진행하면서 건물들을 새로 짓거나 개건해야 하는 작업량은 아름찼지만 자기들의 생활터전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려는 청년작업반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충천하였다. 어만선, 김명성, 김효심동무를 비롯한 부문청년동맹위원회 초급일군들과 어명혁, 림유철동무 등 분조장들이 앞장에서 화선선동을 들이대며 혁신의 불비람을 일으켰다.

그 나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자정도 훨씬 넘은 밤 세면장으로 꾸려고있는 곳에서 불빛이 알림듯말듯 새어나왔다. 김명빈동무가 동무들이 깨여날세라 문을 가리우고 가만가만 미장작업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작업반원들의 마음은 하나같았다. 당세포위원장 강성삼, 작업반의 년장자인 맹영삼동무들에 이어 분조장, 초급단체비서들이, 그다음에는 눈을 조금 붙인 모든 청년들이 한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집단의 단합된 힘은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왔다. 청년작업반원들은 알곡생산계획의 완수와 함께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림에서의 자랑찬 성과를 안고 그리움의 12월을 맞이하였다.

정신이 번쩍 들게 꾸려진 청년작업반의 농업과학기술선전실과 합숙, 식당과 세면장 등 문화후생시설들…

거기에서 우리는 청년작업반원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애국으로 불타는 청춘의 심장으로 영광의 대지에 젊음을 안겨주리!

염금명

—선교구역공원유원지관리소 장충공원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제32차 철도성 과학기술축전 개막

【평양 3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제32차 철도성 과학기술축전이 개막되였다.

철도운수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 교원, 로동자 등이 참가한 축전에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12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제출되였다.

축전은 기계, 건설, 운영, 정보, 전기, 자동화, 의학분과로 나뉘여 과학기술성과발표회 및 전시회, 새 기술교류형식으로 진행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기쁨을 드린 《태양빛유람선SR전동기구동장치》와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의의있는 《철길강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생산공정》, 《기관차관용수재생리용방법》, 《대청분기회로를 리용한 고효률소형화용접기》 등의 성과자료들이 축전장에 전시되였다.

14일에 있은 개막식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는데서 이룩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선전보급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철도현대화실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나감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외무성에서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마련

외무성에서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 31돐에 즈음하여 14일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쏘뚤룽고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신홍철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신 력사적인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과 꾸바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과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체육오락경기도 하면서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였다.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소식

우리 나라의 4.25팀이 몽골의 에르침팀을 6:0으로 이겼다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가 시작되였다.

9조에 속한 우리 나라의 4.25팀, 기관차팀과 몽골의 에르침팀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련맹전의 방법으로 래왕경기를 진행하며 여기서 성적이 높은 팀이 다음단계 경기에 진출하게 된다.

5월 1일 경기장에서 14일 4.25팀과 에르침팀사이의 경기가 있었다.

우리 4.25팀선수들은 시작부터 주도권을 쥐고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드센 공격을 들이대여 보기좋은 득점장면들을 펼쳐놓았다.

결국 4.25팀은 에르침팀을 6:0으로 이겼다.

경기는 계속된다.

제10차 이젤스크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 귀국

제10차 이젤스크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이 1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로씨야의 우드무르찌야공화국 이젤스크시에서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중국, 몽골, 우크라이나,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를 비롯한 14개 나라의 이름있는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체력교예 《다각전회비행》에 출연한 우리 나라 배우들은 공중에서 난도높은 기교동작들을 완벽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과 교예전문가들,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축전조직위원회에서는 용감성과 대담성, 희열과 랑만이 넘쳐나는 우리 나라의 체력교예 《다각전회비행》에 특별상을 수여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오영철문화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예술인들이 교예배우들을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유선립산사업소에서

산지도로개척의 5일간에 새겨진 위훈

유선립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광명성절까지 상반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완수하려고 이어 최근 1.4분기 통나무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한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는 여기에 산지도로를 열어나가는 과정에 발휘된 5일간에 걸치는 위훈의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를 전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지난 1월 어느날 통나무생산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앞길에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였다.

얼음강판과 얼음비깨로 덮인 산지도로가 앞을 막아나섰던것이다. 그 길이는 무려 10여km나 되였다. 자동차, 뜨락또르는 물론 소발구도 제대로 다닐수 없었다.

산지도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높이 세운 통나무생산계획을 제 기일내에 수행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였다. 지배인 리호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릴수 없었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우리의 힘으로 산지도로를 기어이 열어제끼자.

이런 열의로 심장을 끓이며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산지도로를 개척하기 위한 전투에 떨쳐나섰다. 살을 에이는 강추위속에서 진행하는 얼음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포성없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칼날같이 뾰족한 얼음조각들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였다. 어떤 구간에서는 발목까지 빠지는 물속에 들어가 얼음을 깨내야 하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다.

점심식사하러 오고가는 시간도 아까와 전투장옆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일하였다. 어두워지면 우등불을 피워놓고 작업을 계속하였다. 우등불에 발을 녹이고는 또다시 얼음물속에 뛰여들었다.

그리하여 10여km에 달하는 산지도로를 5일동안에 개척하고 통나무를 실은 첫 롱전기재를 통과시키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이 추켜든 결사관철의 정신, 혁신의 불길은 모든 산지들에 타번져갔다. 작업소들에서 통나무생산실적은 나날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사업소는 광명성절전으로 상반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산지도로개척의 5일간, 이 나날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자기 힘을 믿고 사생결단의 각오와 백절불굴의 의지로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투쟁의 진리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독자의 편지

사회주의대가정이 제일입니다

저는 라선땅의 정법한 영예군인입니다.

어느덧 일흔고개를 넘기고보니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서투른 글로나마 터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사회적관심속에 사는 영예군인가정이라는것도 있겠지만 보다는 자식복이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명절날과 국가적기념일은 물론이고 때없이 찾아와 친자식의 따뜻한 정을 부어주는 그 많은 자식들속에는 맏딸로 불리우는 라선철도건설려단 의사 박영신동무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뜨거운 진정을 바쳐온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 짧은 글줄에 담을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수년세월이 흘렀지만 병원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일까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의 가정에 세쌍둥이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자기 집안의 경사처럼 기뻐하며 산모의 건강회복에 좋은 보약재들을 안겨주었고 저의 건강을 추켜세우려고 김이 분분 나는 닭곰, 토끼곰을 정성스레 해가지고 새벽일찍 찾아오기도 하고 벌식이 생기면 밤에도 찾아오는 뜨거운 그 모습에 눈굽을 적신 날들은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얼마전 생일을 축하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노래를 요청하였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 맏딸과 함께 노래를 부르겠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라는 노래는 합창으로 번져졌습니다.

저의 두볼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저의 심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대가정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라선시 라진지구 안주동 82인민반 장상수

미국 CBS방송사 총사장일행 도착

데이비드 로즈 미국 CBS방송사 총사장일행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을 등진 매국노, 대결광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만고역적의 비참한 말로가 보여준 교훈

희세의 악녀인 박근혜역도가 마침내 력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난 역도년은 모든 특권을 상실하고 특급범죄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가련한 처지에 빠지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조사자료에 의하더라도 박근혜가 최소 유기징역형, 최대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족을 등지고 민심을 거역해온 특등죄인에게 차례진 응당한 대가이다. 박근혜의 탄핵이 결정되자 남조선의 남녀로소모두가 역도년의 폭정에 의해 서리고 맺히였던 울분이 기쁨의 눈물이 되여 흐른다고 하면서 환호를 터치고있다.

박근혜역도는 민족앞에 지지른 엄청난 죄악으로 하여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신세에 처하였다. 《유신》독재자로 악명떨치던 애비가 심복의 총탄에 맞아 수치스러운 개죽음을 당하였다면 그 후에는 감옥귀신이 되여 산채로 썩어지게 되였다.

박근혜역도의 가련한 운명은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와 함께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그것은 민족을 등지고 외세의존에 명줄을 걸며 역적질을 밥먹듯 하는 반역무리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는 역적배들이 파멸당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라는것이다.

사회의 자주적발전과 민주화의 실현, 조국통일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장장 수십년동안이나 외세의 지배와 친미독재《정권》들의 파쑈폭압통치에 의해 자주와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이 무참히 짓밟혀왔다.

리승만《정권》이 력사무대에서 수치스럽게 퇴장한 이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하고 남조선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열매를 하루아침에 짓뭉개버린 박정희역도는 수많은 각종 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을 조작하고 중세기적인 총칼통치를 실시하여 온 남조선땅을 쉴새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박정희역도의 치떨리는 파쑈적악행에 의해 수많은 애국적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이 피흘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마침내 10월민주항쟁의 봉화를 지펴올렸고 그 거세찬 불길속에서 《유신》독재자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다.

그에 이어 새로 등장한 전두환, 로태우군사파쑈도당도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광주인민봉기자들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대학살만행이였다. 하지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괴뢰군부깡패들도 민주화투쟁의 거세찬 격류를 막을 길이 없었다.

군사독재《정권》의 추악한 사생아로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악랄하게 감행한 《문민》독재광인 김영삼역도도,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피비린 탄압만행과 민간인불법사찰 등으로 악명높았던 리명박역도도 결국 민심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박근혜역도가 지난 집권 4년간 지저른 죄악은 선임자들의 그 모든 죄악을 철썩 릉가한다. 외세를 등에 업고 희세의 파쑈독재통치로 온 남조선땅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 공포와 제압의 지옥으로 전락시키고 북남관계파괴와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던 박근혜역도는 그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으로 하여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비참한 신세에 처하였다.

반역통치배들에 대한 인민의 징벌은 단호하고 무자비하며 무섭다. 박근혜역도의 가련한 말로도 그것을 보여준다.

친미사대, 매국배족의 무리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이 언제 가도 정치후진지역, 식민지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없고 자신들이 불행과 고통에서 헤여날수도 없다는것을 깨달은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계기로 온갖 사회악의 근원이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방해자인 박근혜패당을 징벌하기 위한 대중적인 항쟁에 결연히 일떠섰다. 인민들이 높이 추켜든 분노의 초불에 의해 천하의 악녀는 드디여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박근혜역도를 거꾸러뜨린데 이어 보수패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리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는 지금 무서운 용암마냥 세차게 이글거리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어 매국을 일삼는자들은 인민들의 증오와 규탄을 받는것은 물론 상전으로부터도 처참하게 버림을 받게 된다. 박근혜역도의 비참한 운명도 그것을 말해준다.

박근혜역도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상전들의 뒤받침밑에 권력을 유지하며 동족대결소동을 강화하기 위해 남조선의 모든것을 서슴지 않고 가져다바치였다.

그러나 미국상전은 주구로서 이미 쓸모가 없어진 괴뢰역도를 령정하게 배척하였다.

사실 박근혜《정권》은 애당초 출현할 때부터 불행과 파멸의 씨앗을 품고있었다. 무지무능하고 물취미에 빠져있던 정신적불구자인 박근혜가 《대통령》벙거지를 뒤집어쓰게 된것은 아무리 천하얼뜨기일지라도 인형처럼 들여앉혀놓고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려는 미국상전의 속구구때문이였다. 그런데 박근혜가 그토록 구세주처럼 섬기며 모든것을 바쳐온 미국상전은 제발 살려달라는 주구를 사정없이 차버렸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이미 정치적운명이 끝장난 박근혜를 살릴 방도가 없으며 설사 살려놓았댔자 저들의 리익에 도움이 될것은 꼬물만큼도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박근혜의 퇴진을 늦추어서 얻을것은 없다.》, 《지체없이 다음기 〈대통령〉을 뽑는것이 좋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었다.

청와대의 비루먹은 늙다리암개는 이처럼 상전으로부터도 완전히 외면당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파쑈폭압과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자들이 파멸당하는것은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지금 박근혜의 탄핵으로 땅바닥에 나딩구는 가랑잎신세가 된 괴뢰보수패당은 외세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더욱 추종하는것으로 삶길을 열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멸망을 재촉하는 무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짓이다.

괴뢰역적패당이 파멸의 운명에서 헤여나올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허 영 민

민족반역자 박근혜를 탄핵한 힘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사회를 건설하자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성명 발표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10일 《민족반역자 박근혜를 탄핵한 힘으로 자주, 민주, 통일 새 사회를 건설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날에 민족반역자 박근혜가 탄핵된것은 초불혁명을 통한 민중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지난 겨울동안 초불혁명에 나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녘동포들과 미국의 뉴욕, 시카고 등 세계각지의 동포들이 한마음으로 박근혜퇴진투쟁을 벌렸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지난해부터 불타오른 초불혁명이 민중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녘동포들을 민생지옥으로 몰아낸 박근혜와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 최순실 등 그의 일당들을 이제는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

박근혜일당을 철저히 일벌백계하지 않고서는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로 향해가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이제 조작과 은폐로 덮어진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

박근혜의 계획된 사주로 벌어진 어린 학생 304명의 죽음을 되살려야 한다.

반드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평화를 지향하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민간인이 된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여 4년동안 박근혜의 악정으로 피폐해진 남녘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죽음에로 내몰면서도 《종북》사냥으로 이를 은폐하고 남북관계개선은 물론 사회의 정의화조차 실현되지 못하였다.

특히 황교안은 박근혜의 앞잡이가 되여 남녘사회를 처참하게 도륙내였다.

황교안은 박근혜의 탄핵을 가로막고 그의 범죄를 은폐조작시킨 주범이며 통합진보당해산,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리행요구, 남북관계파탄, 《싸드》배치강행 등으로 철저하게 반민족, 반통일적태도를 보였다.

그는 박근혜탄핵이라는 초불민심을 외면하고 민족의 정기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조선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제2의 박근혜와 같은 민족반역자이다.

황교안을 비롯한 각 부서 장관들은 모두 물러나 박근혜와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초불민심을 따른것처럼 검찰도 초불민심에 따라 박근혜와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최순실 등 그의 일당들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박근혜탄핵은 초불혁명의 시작이며 《대통령》자리에 숨어 심판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탄핵된 박근혜에게는 더이상 특권이 없다.

민간인이 된 박근혜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그와 함께 초불민심의 심판을 면할길이 없을것이다.

민족반역자 박근혜와 그 일당은 심판을 받고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는것이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힘으로 사회의 정의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자주, 민주, 통일세상을 만들어가자.

【조선중앙통신】

당장 감옥에 처넣어야 할 특등범죄자

박근혜가 탄핵당한 후 역도년을 당장 구속수사하고 가차없이 처형할것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가고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역도의 탄핵이 선고된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그에 의하면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일치하게 박근혜역도를 즉각 구속하여 수사할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10일에 있은 초불집회때에도 《박근혜를 감옥으로》라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의 아당들은 박근혜역도가 범죄의 증거들을 훼손시키거나 숨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면서 청와대를 지체없이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에 대한 구속과 수사문제가 절정에 오르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6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의 특대형추문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였다. 그에 따라 지금껏 제기되였던 박근혜역도의 수많은 범죄혐의들이 더이상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 드러났다.

특별검사는 수사결과보고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으로부터 받은 뢰물이 433억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역도가 리재용이 기업경영권을 넘겨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설립자금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비를 뢰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는 박근혜가 삼성전자뿐아니라 다른 재벌들로부터도 재단설립을 위해 비법적으로 자금을 걷어들이는 등 권력을 악용하여 제 리속을 채웠다고 하면서 역도에게 직권람용죄보다 형량이 훨씬 많은 뢰물수수죄를 적용하였다. 그밖에도 특별검사가 박근혜역도에게 적용한 범죄항목은 강요, 비밀루설, 의료법위반 등 무려 13가지나 된다.

특별검사의 최종수사결과발표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법률전문가들은 박근혜의 범죄혐의들은 단순한 일반범죄가 아니라 최악의 특급범죄에 해당되는것으로 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의 무거운 형벌이 차례지게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은 특검수사에 의해 밝혀진 박근혜의 범죄사실들이 역도가 집권 4년간 지지른 하많은 죄악들을 놓고 볼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범죄사실들이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박근혜역도는 탄핵당하기 직전까지 《대통령특권》을 등대고 제년의 특대형추문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청와대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비롯한 범죄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으면서 시간끌기를 하였다. 한편 박근혜의 특등졸개인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역도는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할데 대한 초불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하면서 2월말 특검수사를 끝내 종결시키였다.

이런 방해책동으로 하여 특별검사는 괴뢰역도의 그 수많은 범죄혐의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채 자기 업무를 끝내지 않을수 없었다. 결과 특별검사의 최종수사결과보고서에는 박근혜역도의 수많은 범죄사실들이 오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태가 달라졌다. 박근혜가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함으로써 괴뢰역도의 《불소추특권》도 사라졌다. 박근혜역도는 범죄수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특별검사는 자기 업무를 계속하면서 박근혜역도의 범죄사실자료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괴뢰검찰당국에 통땅 넘겨주었다. 그것은 무려 수만페지에 달한다고 한다.

그에 따라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계획하고 석달만에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내온 검찰측은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박근혜를 당장 구속수사할데 대한 민심의 추상같은 요구에 떠밀리운 검찰측은 괴뢰역도에 대한 강제수사도 마다하지 않을 자세를 보이고있다. 이미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등을 포함한 강도높은 수사에 착수할것이라는 립장을 내비쳤다. 남조선언론들은 검찰당국이 박근혜와의 대면조사는 물론 추가적인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시도할것이라고 전하고있다.

박근혜역도의 죄악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역도에게 이제 남은것이란 제년이 숨겨둔 모든 죄악을 솔직히 털어놓고 일찌감치 력사의 무덤속으로 사라지는것뿐이다. 역도가 지지른 엄청난 죄악은 설사 땅바닥에 코를 박고 끝내면 사죄해도 절대로 용서를 받을수 없는것이다.

끈 떨어진 뒤웅박신세가 된 박근혜역도가 특등범죄자로서 개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여 망신만 째째 당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박철준

정의의 힘, 단결의 힘으로 통일의 새봄을 기어이 안아오자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선전국 국장 담화 발표

한성옥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선전국 국장이 11일 《정의의 힘, 단결의 힘으로 통일의 새봄을 기어이 안아오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온 남녘땅이 박근혜탄핵함성으로 뒤흔들리고 용암처럼 흐르는 초불대하가 죄악의 소굴 청와대를 통째로 삼켜버릴 기세로 세차게 흐르던 끝에 마침내 역도년에게 가장 비참한 파멸을 안기였다는 통쾌한 소식에 접한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는 전인민적항쟁으로 귀중한 승리를 안아온 남조선인민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쟁취한 이 승리는 정의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썩어빠진 반역《정권》을 기어이 청산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려는 민심의 요구가 정당하였다는것을 힘있게 증명해주는 력사적장거이라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의 승리는 부정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 파쑈독재에 맞선 민주주의의 승리, 사대와 매국, 반통일세력을 타승한 자주와 통일, 애국세력의 대승리이다.

박근혜역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소박한 마음을 극악한 파쑈독재통치로 억누르고 겨레의 조국통일념원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선 만고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준엄한 심판, 분노한 민심의 천벌을 받았다.

엄혹한 시련을 이겨낸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로 뭉쳐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남조선인민들에게 다시한번 새겨주었다.

박근혜역적패당의 만고죄악으로 하여 최악의 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제끼려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 벅찬 환희와 앙양된 대중적투쟁열기로 민중이 주인된 새 사회를 건설하고 온 겨레와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새날을 안아와야 할것이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정의의 힘, 단결의 힘으로 통일의 새봄을 기어이 안아오기 위해 맨 앞장에서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반성대신 폭력과 혼란을 부추기는 역도년 단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3일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박근혜》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였다.

사설은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여 청와대에서 쫓겨나면서도 끝내 아무런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자기 집주변에 모여든 《박사모》회원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앞에서 박근혜가 자기를 지지성원해준데 대해 인사치레를 하였을뿐 제가 지지른 《국정》롱락과 4개월동안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데 대한 대국민사과는 없었다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이런자가 무려 4년간 《대통령》이였다는 사실에 국민은 아연실색하였다고 사설은 개탄하였다.

사설은 폭력과 혼란을 부추기며 법치를 부정하는 범죄자의 행위를 절대로 묵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이 박근혜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더 서둘러야 할 리유가 분명하여졌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국정》롱락과 정경유착 공범자들의 처벌 주장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10일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과 관련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단체는 《국정》을 롱락하여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초불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고 민주주의회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게 되였다고 단체는 지적하였다.

박근혜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파면된 박근혜를 비롯하여 《국정》롱락과 정경유착의 공범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하였다.

단체는 정치권이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파면을 이끌어낸 국민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것이라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전쟁연습

미제가 조선동해에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기습타격훈련에 진입

【평양 3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때에 놈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3월 10일부터는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 《칼빈손》호와 유도탄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호, 이지스구축함들인 《마이클 머피》호, 《마이어》호로 편성된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동해상에 은밀히 기동전개시켜놓고 우리측 지역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타격훈련에 진입하였다.

11일 하루동안에도 수많은 함재기들을 항공모함에서 리함시켜 우리측 평공, 평해와 가까운 항로를 따라 비행시키면서 아군지상대상물들에 대한 폭탄투하훈련과 불의습격훈련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선제타격하려는 미제의 무분별한 기도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번져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미제의 모든 전략자산들은 우리 군대의 강위력한 초정밀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군대의 초정밀타격이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에서 무자비하게 가해질것이다.

호전광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재중동포단체 북침핵전쟁연습을 규탄하는 집회 진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가 8일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황영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회장,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지부장 권헌 등 일군들과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먼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성명 《온 겨레가 총궐기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자》가 랑독되였다.

이어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발표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성명에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겨냥한 북침핵전쟁연습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1950년대와는 달리 핵전쟁으로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파괴자들의 정체는 가리울수 없다

지금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 방대한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된 가운데 남조선의 도처에서는 야외기동훈련, 해상특수작전훈련을 비롯한 각종 련합훈련들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서 《4D작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싸드》배비를 가상한 훈련까지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한데 이어 이번 연습의 기본목적이 우리에게 핵선제타격을 가하는데 있다는것을 내놓고 떠들어댔다.

내외호전광들이 온갖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악명높은 최신핵타격수단들을 투입한 속에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군사적도발소동을 하늘과 땅, 바다에서 쉴새없이 감행하고있는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리드리려는 미국과 괴뢰들의 흉악한 기도의 발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핵선제공격하기 위한것이다. 이 연습자체가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기도에 맞게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무대들의 련합 및 합동작전능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전쟁준비를 최종완성할것을 노리고있다.

더우기 올해의 연습은 례년에 비해볼때 위협천만하기 짝이 없다.

이번 북침합동군사연습에는 지금껏 가장 큰 규모로 감행되였다고 하는 지난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때보다 더 큰 규모의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무력이 참가하고있다. 핵항공함 《칼빈손》호, 핵전략폭격기 《B-52》를 비롯한 미국의 악명높은 핵전략자산들도 쉬파리떼처럼 쓸어들고있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참수작전》을 포함한 극히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내용들로 일관되고있는 사실이다. 내외호전광들은 지난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서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바 있다. 올해의 합동군사연습도 그의 실전가능성을 확정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감행되게 된다.

미해병대 1사단과 3사단 등 미제침략군의 특수전무력이 남조선에 물밀듯이 쓸어든 속에 지난 시기 해외에서 《참수작전》으로 악명을 떨친 미해군특수전단 《씰》부대가 핵항공모함 《칼빈손》호에 탑승하여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하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중심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신속한 기동과 전개, 정밀타격과 기습점령에 초점을 맞춘 《쌍룡》훈련도 한달동안이나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벌써 지난 2월에 《북의 핵심시설장악》과 《대량살상무기제거》를 노리고 미륙군의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부대 2개 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지난 시기 중대급규모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되던 미제침략군의 스트라이커부대가 대대급으로 참가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북의 핵과 미싸일에 대한 공격적제거》를 골자로 하는 매우 위험한 전쟁각본인 《4D작전계획》에 따라 벌어지게 되는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미국이 군사분계선을 돌파하기 위한 100여대의 지뢰방란장갑차를 남조선에 비밀리에 끌어들이고 미제침략군가족들과 미국시민권을 가진자들을 남조선에서 긴급대피시키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놓은 상태에서 감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얼마나 위험한 침략전쟁도발책동인가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로써 북침핵전쟁도발을 피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것은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과 괴뢰들의 흉악한 북침기도가 깔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전면전쟁의 불집을 리드리는 뢰관으로 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명백한것은 이 전쟁연습의 강행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이 극도로 증대되고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핵전쟁광신자, 극악무도한 평화파괴자들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억척같이 다져온 강위력한 핵억제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진 이상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에 단호히 대응해나가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책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정의의 핵보검으로 적대세력의 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의 초강경조치들은 보다 강도높게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해지게 될것이다. 누구도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적대응조치들에 대해 시비하지 말아야 한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다. 우리는 이미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통하여 북침핵선제타격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 전쟁미치광이들을 탄도로케트의 집중적이며 련속적인 타격으로 죽탕쳐버릴 백두산혁명강군의 멸적의 보복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며 계속 무모하고 잘망스럽게 놀아댄다면 우리는 단호한 징벌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다.

원쑤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것이 바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점에서 그 목표가 근거리에 있든 먼거리에 있든, 린접에 있든 대양건너에 있든 모조리 소멸할수 있게 초정밀화된 주체탄, 우리 식 전략무기체계들의 무한대한 타격능력이다.

우리 전략군은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원쑤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하게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수 있는 최정예전략무력이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령토와 령해, 령공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우리의 화성포들은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불가능하게 모조리 초토화해버릴것이다. 이것은 결코 빈 말이 아니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며 후회는 항상 뒤따르는 법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노호하는 우리 천만군민의 원쑤격멸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심 철 영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하는것은 우리의 불변의 립장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외피마저 벗어던지고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기동전개된 미제의 수많은 살인작전집단들과 핵타격수단들이 북침공격을 위한 기동을 시작하였다. 미제침략군의 핵항공모함 《칼빈손》호의 부산항입항에 뒤이어 조선반도유사시 가장 먼저 증과되는 주일미해병대의 《F-35B》스텔스전투기편대도 투입될것이라고 한다.

가소로운것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의 《핵 및 미싸일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수준》이니 뭐니 하며 저들의 침략책망동을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에 대한 대응으로 분칠하고있는것이다.

공정한 내외여론은 격분과 조소를 보내고있다.

미국이 아무리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세계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범죄적목적을 명확히 들여다보고있다.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들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깊은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사상 최대최악의 반공화국압살소동이다.

미제의 핵항공모함타격단들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등 각종 전략자산들이 총투입되는 올해연습의 규모는 지난해를 훨씬 릉가한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극히 도발적이며 공격적이다.

미제와 괴뢰들은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4D작전》의 구체화와 동시에 《싸드》배비를 가상한 훈련이 벌어지게 된다는데 대하여 뻐젓이 공표하였다. 주변대국들마저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는 《싸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더 론할 필요도 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수많은 상륙함정들과 해군, 해병대무력의 참가하에 대규모련합상륙훈련도 벌어지게 된다. 상륙은 곧 공격이다. 미해병대는 세계도처에서 악명떨친 침략의 선견대이다. 그와 함께 미제의 최신예전투기들까지 투입하여 우리의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 공중합동훈련 《맥스 씬더》도 감행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핵전쟁연습은 최근 우리의 핵무력강화를 겨냥들며 사상 최악의 정치경제적제재압박소동에 매여달리고있는 속에 감행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한것으로 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가족들과 미국시민권을 가진 체류자들을 긴급대피시키기 위한 각본까지 만들어지는 등 현 사태는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이것을 통하여 새로 등장한 미행정부가 조선반도에서 피하는 《힘에 의한 평화》란 곧 제2의 조선전쟁도발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홍콩신문 《대공보》는 《금번하는 조선반도정세와 경계해야 할 점》이라는 기사에서 현재 조선반도정세긴장이 고조되고있는데 그 진망은 누구도 예측할수 없으며 금번하는 조선반도정세의 원인은 바로 미국, 일본, 남조선의 긴장격화책동에 있다고 단죄하였다. 또한 반공화국제재, 《싸드》배비, 합동군사연습은 모두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백해무익한것이라는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선이 핵무기를 중추로 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것이라는것이 명백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천만한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또다시 강행하고있는 이상 우리는 초강경으로 대응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핵전쟁을 억제하는 힘도 그만큼 커진다. 더우기 《핵만능론》을 제창하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핵공격능력은 곧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막고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핵불구름을 걷어내는 정의의 보검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유사시 일본주둔 미제침략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이 그것을 립증해준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대하며 반공화국핵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있는 전쟁미치광이들을 탄도로케트집중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멸적의 보복의지가 과시되였다. 항공교예비행대의 전대비행과도 같은 우리 탄도로케트들의 고도의 정밀성과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화력타격의 신속성, 일치성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포에 떨고있다.

적대세력들이 또다시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지만 국제사회는 코웃음을 치고있다. 중국의 《환구시보》에는 여러 중국학자들이 조선의 이번 탄도로케트발사목적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하자는데 있는것이라고 일치하게 주장한데 대한 론평이 실렸다.

며칠전 홍콩봉황위성TV방송 기자와 론평원이 진행한 대담내용은 더욱 격관적이다. 그 내용을 보면 조선의 련이은 탄도로케트발사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며 국제사회도 이제는 조선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처럼 정례화되였다는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것, 사상 최대의 병력참가로 력대 합동군사연습규모를 릉가하는 이번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참수작전》, 선제타격 등 공격적성격으로 일관되여있다는것, 이번 조선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사상 최대규모로 강행되고있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적압박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국방력과시의 일환이라는것, 그것을 통하여 경제제재와 군사적압박은 조선에 통하지 않는다는것이 실증되였으며 미국과 남조선의 행동은 오히려 전쟁만 불러오는 위험한 요소로 된다는것, 조선반도에서 안정을 파괴하고 전쟁을 몰아오는 위험은 조선에 있는것이 아니라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등에 있는것이며 따라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더 크게 문제시하는것이 당연하다는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헛나발을 불어대도 핵전쟁소동의 범죄적성격은 절대로 가리우지 못한다.

우리 혁명무력의 전략타격수단들은 세계의 정의를 대변하는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힘에 대한 과학적증시로 된다. 우리의 핵타격수단들의 위력은 곧 우리의 국력이고 우리의 존엄이다.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성스러운 사명이다.

지금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으려고 미쳐날뛰는 침략자, 도발자들이 동지를 튼 적진을 일격에 재가루로 만들고 단숨에 타고앉아버릴 백두산혁명강군의 멸적의 기상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있다. 그 기상과 분노가 우리 식의 군사작전계획에 따라 적들의 아성을 조준권안에 넣고있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전략로케트들에 만장약되여있다.

최근 로씨야군사전문가 올라지미르 흐루스딸료브가 날로 고도화되는 우리의 로케트발사기술에 대해 평한 내용이 인터네트에 소개되였다. 그는 점점 규모가 커지는 조선의 로케트발사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할수 있다, 목적은 일제사격으로 파괴하자는것이다, 한번에 많은 로케트를 발사하는 방법은 어렵고 까다롭지만 조선은 현재 그것을 알고있다, 2016년 9월 3발의 탄도로케트를, 이번에는 4발의 탄도로케트를 동시에 발사하였다, 앞으로 전체 전략군부대의 일제사격을 보게 될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우리 전략군무력의 위력의 일부에 대한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우리식의 주체무기들로 무장된 백두산혁명강군의 강위력한 타격을 막아낼 힘은 어디에도 없다.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소동에 동조하여 분수없이 이번 핵전쟁연습에 뛰어든 어중이떠중이 추종세력들도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목표에서 례외로 될수 없다.

미제를 위시로 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범역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핵탄두를 만장약한 각종 타격수단들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릴것이다.

리 효 진

외국의 인사들 주장

조선은 불패의 핵강국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전역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에 핵전쟁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어째보려는 침략전쟁연습, 핵전쟁연습이며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침해행위, 적대행위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규탄하며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그 어떤 군사적압력도 자강력에 기초한 조선인민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아. 우쑤브바예브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떠들어대던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조선에 대한 핵선제타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은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국가이며 불패의 핵강국이다.

조선이 천명한것처럼 선제타격권은 미국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수리아 다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싸페르 말룬은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조선을 압살하려고 침략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쳐있는 조선은 도발자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카미 겡이찌는 미국이 조선을 굴복시키려 하고있으나 그것은 완전히 실현불가능한것이다,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있는 조선에 대해 미국은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이 북침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으로부터 보다 큰 보복을 당할것이다고 경고하였다.

예질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룰라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신이 확증해주듯이 강한 국력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자원에 있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조선인민은 침략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나가고있다.

반공화국군사적도발망동에 미쳐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조선의 령토에서 쫄딱 패주하고 다시다면 저들의 종국적멸망만을 다그칠것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나라의 토지문제해결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에서 토지개혁의 실시, 토지문제의 해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946년 3월 5일 김일성주석께서는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 특히 새 사회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토지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자주독립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토지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해결해나가시였다.

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와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끄신 사실자료를 소개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의 토지문제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더욱 훌륭히 해결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온 나라의 토지를 대규모규격포전으로 정리하기 위한 투쟁에로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시고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손길아래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고있는 조선의 현실과 더불어 나라의 토지문제해결에 쌓으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길이 빛나고있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한다

아프리카지역기구 성명 발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제공동체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반도지역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핵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번 연습은 유엔헌장에도 배치되는 극히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행위들은 조선으로 하여금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위한 결정적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도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권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선의 립장은 일관하다.

우리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 대조선정책에서 심사숙고할것을 요구한다.

《김정은각하께서 나라를 이끄신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조선은 그야말로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여러차례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발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힘있게 벌어지는 문명강국건설…

조선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김정은각하께서는 특출한 령도력을 세계앞에 보여주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이 앞으로 어떠한 사변들을 이룩하겠는지 국제사회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할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이 보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뿐아니라 광범한 세계언론들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격동적인 사변들로 위대한 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가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있다.

미국의 AP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공식 정치무대에 등장하신 후 북조선에서 일어난 사변들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할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우선 김정은령도자의 정치기반이 다져진것이다. 그이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계신다.

다음으로 핵 및 로케트기술이 발전한것이다.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북조선의 핵능력이 강화되였다.

지금까지 진행한 핵시험중에서 가장 위력한 3차례의 핵시험이 최근 몇년사이에 진행되였다.

북조선은 미국본토까지 타격할수 있는 수단들을 보유하고있으며 우주정복의 길로 치닫고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이다.

북조선이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병진로선이 효과적이라는것은 현실적으로 증명되였다.

북조선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였으며 경제도 계속 발전하고있다.

람보자의 아끼뻬통신은 2016년 조선에서는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주요사변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하나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를 꼽았다.

이 나라의 국가라지오방송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을 지난해 조선의 중대사변으로 보도하였다.

방송은 또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 국제축구련맹 2016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모두 우승하여 한해에 2개의 월드컵을 틀어올린 영웅조선의 체육신화도 소개하였다.

2016년 조선에서는 10가지 놀라운 사변이 있었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당 제7차대회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력사에 기록될 특대사변으로 선정한 빨가리아신문 《노보 라보뜨니체스꼬 델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방력강화와 경화저우주개발 등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렘쉬위》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국건설을 다그쳐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의지를 내외에 보여준 과학기술전당준공,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과시하게 될 려명거리건설선로, 청년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완공과 두달남짓한 짧은 기간에 큰물피해를 가시고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로 일떠선 함북도 북부지역의 전변을 경이적인 성과들로 소개하였다.

칠레맑스-레닌주의혁명당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날이 갈수록 뜨거워만지는 당과 국가의 온갖 혜택속에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조선의 참모습을 찬양하는 글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5가지 위대한 성과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웨메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동방의 조선은 신비스러운 나라이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제재와 봉쇄, 자연재해에도 끄떡없이 조선은 더욱 강대해지고있다.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지난 5년간 국제사회는 김정은위원장의 특출한 령도력을 똑똑히 목격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시작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이어지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정은위원장을 절대적으로 흠모하고 따르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에 인민의 힘을 더하면 하늘도 이긴다.

도이췰란드신문 《로테 파네》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막강한 정치군사적위력으로 미국과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고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조선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법칙이다.

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계승되고있다.

오늘날 조선은 수소탄까지 갖춘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총파산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어제날 식민지약소국이였던 조선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조선이야말로 기적적인 사변들로 행성을 뒤흔드는 강대한 나라이다. 조선이 달성하고있는 모든 승리의 비결은 대를 이어 걸출한 수령을 모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있는데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를 경탄시키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며 승승장구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기적적인 사변들로 행성을 뒤흔드는 강대한 나라

세계언론들의 평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만 수호될수 있다

인류는 온 세계에 평화가 보장되고 안정이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그와 배치되는 현실들이 펼쳐지고있다.

올해벽두에 뒤르끼예의 이스딴불에서 수십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총격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테로범죄의 물결이 장마때의 홍수처럼 이라크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에로 사품쳐가고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내전의 총포소리가 더욱 세차게 울려나오고있고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는 핵전쟁발발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있다.

그렇다면 평화의 파괴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이다.

바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자들이다. 그들은 테로와 침략, 전쟁의 온상이며 기본장본인이다. 지금 이 시각도 제국주의자들은 살륙과 강탈로 비대해진 거대한 몸집을 흔들어대며 지구의 곳곳에서 전쟁의 불길을 지펴올릴 곳을 찾고있다.

현실은 모든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평화애호적인 나라들이 자주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맞서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세계의 평화보장에 책임적인 기여를 한다는것은 곧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맞서싸울수 있는 자체의 강위력한 힘을 키운다는것을 의미한다.

말로는 지킬수 없는것이 평화이고 구걸로는 보장할수 없는것이 나라의 안전이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자체의 힘으로 마련한 튼튼한 군력에 의거하여야 수호될수 있다.

굴욕적인 청락이나 타협적인 회담락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 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마련하고 강화한 군력이 없이 평화를 절대로 수호할수 없다는것은 오늘날 테로와 살륙의 란무장으로 화한 중동지역나라들의 교훈이 보여주고있다.

한때 군사력에서 중동지역적으로 손꼽힌다고 하던 이라크군의 무장장비는 거의나 돈을 주고 사온 외국제였다. 원유대국인 이라크의 지도부는 돈만 있으면 무장장비를 해결하는것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페르샤만전쟁이후 가해진 대이라크제재는 이 나라의 군력을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버리였다. 이라크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제전투기가 수백대나 있었지만 필요한 부속품들과 설비들이 없었던탓에 단 한대도 뜨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극적이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단독으로 맞서싸우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가 시대의 혁명정신으로, 시대를 변혁시키는 위대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이룩한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은 해당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존엄있게, 평화적으로 살아갈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평화는 자기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단히 강화해나갈 때만이 더욱 굳건히 담보된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간섭이 살판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평화는 오직 강위력한 힘에 의해서만 이룩되고 뜻뜻이 수호될수 있다. 힘이 강해질수록 긍지는 높아지고 평화도 더욱 굳건해진다.

하지만 자기 위업에 대한 신념이 굳건하지 못한 총대, 자주정신이 희박한 총대로는 절대로 평화를 수호할수 없다. 력사는 자주정신이 강하지 못한 나라들은 례외없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겁을 먹고 어리벙벙하며 그들이 입으키는 유혹의 바람에 속아 좌왕우왕하다가 종당에는 주권을 유린당하고 내전의 불도가니속에 빠져든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003년 12월 리비아는 자국의 비상용무기계획을 공개하고 철폐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아프리카에서 강경한 반미국가로 알려진 리비아가 미국의 핵포기압력에 굴복하여 성명을 발표한것은 곧 지역강국의 종말, 평화의 파괴를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은것이였다. 핵탄두설계도면이 미국에 고스란히 바쳐지고 힘들게 마련한 핵설비와 장거리미싸일유도체계들이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되여버렸다. 결국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요구앞에 무릎을 꿇고 군력강화의 길을 포기한 리비아에 차례진것은 약소국의 설움과 내전뿐이였다.

자주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위대한 정치대국,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은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줄달음쳐가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병진로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새로운 병진로선이 있어 우리 나라는 동방의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단호히 맞서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무진막강한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자력자강의 피라는 투쟁으로 이룩한 경화수호를 위한 총대야말로 정의의 힘, 승리의 총대이다. 영국의 한 언론은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그자체가 미국이 이제는 조선을 공격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비참한 처지에 빠진 중동나라들의 실태를 놓고볼 때 조선의 선택은 옳은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조선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것은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우리 공화국이 미제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의 광풍을 단호히 쳐물리치면서 동방의 핵강국의 지위를 차지한 력사적의의에 대해 똑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1950년대에 미제가 강요한 전쟁으로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겪었으며 수십년세월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 살아오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정의의 총대에 의해 평화가 수호될수 있다는 굳센 신념과 배짱이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억척의 기둥마냥 뿌리박고있다.

제국주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평화에 대한 인류의 념원은 말로써는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강도적인 힘의 론리에 매여달리고있다. 정치외교적방법으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면 횡포한 군사적공격으로 넘어가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침략과 전쟁을 위해서라면 국제법도 유엔도 안중에 두지 않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다.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국방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군력강화를 제일국사로 내세운다면 제국주의자들의 횡포무도한 책동은 제압되게 될것이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새 세계건설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김 승 철

《싸드》배치의 위험성 경고

로씨야외무성이 9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의 위험한 후과에 대해 경고하였다.

외무성은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지에서 미싸일방위체계의 전개범위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세계의 전략적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후과를 산생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외무성은 《싸드》배치가 지역에서 미싸일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전략적안정을 파괴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인권보고서》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무성이 발표한 《2016년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가 전건으로 가득차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정부는 미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국의 인권상황을 대하며 인권문제를 구실로 중국내정에 간섭하는것을 중지할것을 다시금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홍콩, 마카오의 상황을 시비하면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

빈부격차 심화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 30년동안에 거의 70%나 되는 수익이 10%밖에 안되는 부자들의 수중에 흘러들었다.

또한 지난해 중산층 평균비률이 2000년-2008년에 비해 10% 감소되였다.

어린이학대행위 성행

일본에서 지난해에 약 5만 4 230명의 어린이가 학대행위로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46% 더 많은것이라 한다. 9일 이 나라 경찰청이 밝혔다.

인종차별 우심

미국에서 인종차별행위가 성행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2015년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적수공권의 흑인남성들의 수는 백인들에 비해 5배나 더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지불에서도 백인과 흑인의 차이는 근 40년래 최악을 기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710412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